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Attachments to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on Delinquencie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 교수 이주리*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Lee, Ju-Li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ttachments to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on delinquencie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nts were 2844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2004-2006 panel 2 data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For analyses of research questions, frequencie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s, Pearson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with SPSS 12.0.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 (1) For boys, attachments to parents reduced delinquencies more than for girls. However, for girls, attachments to teachers reduced delinquencies more than for boys. (2) Attachments to friends influenced delinquencies negatively in the 4th grade, but influenced delinquencies positively in the 6th grade. (3) When boys and girls kept in touch with delinquent peers, attachments to parents largely influenced delinquencies.

--

▲주요어(Key Words) : 부모애착(attachment to parents), 교사에착(attachment to teacher), 친구애착(attachment to friend), 일탈(delinquencies)

I. 서 론

최근, 아동발달과 사회환경의 가속화 현상으로 일탈행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일탈 행동은 또래관계에서의 공격적·폭력적 행동 뿐 아니라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행위, 음주·흡연, 성행위 등 규준을 벗어난 다양한 행동들을 포함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흡연, 음주, 가출하기 등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간주되어 오던 이러한 일탈행동

들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19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17개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1,5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 경험자의 21.6%, 흡연 경험자의 16.6%가 각각 8~13세때 처음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가출 유경험자 중 33.7%가 최초 가출시기 8~13세라고 응답하였다(한국일보 2007년 9월 11일자). 이러한 일탈행동들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청소년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해서는 최선

* 주 저 자 : 이 주 리(E-mail : julie@cau.ac.kr)

회와 김희수(2006)의 연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 시기는 이룰수록 좋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들과의 관계는 초등학생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모,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일탈과 같은 문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 이들과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는 애착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특정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뜻한다(Bowlby, 1958). 대표적으로 영아가 어머니 또는 양육자와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아기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성인기까지 대상으로 하여(김영혜 등, 2007; 김충기·천귀순, 2003; 백혜정, 2007; 송호창·오윤자, 2006; 유안진 등, 2005; 이시은·이재창, 2005; 정기원·권량희, 2006) 전생애적 관점에서 애착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초등학생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일탈과 관련된 부모 변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자녀들의 높은 일탈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나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는 자녀의 일탈행동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세에서 18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강압적이며 갈등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들의 외현화 장애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Kim et al., 1999),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갈등은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김이철, 2000). 부모의 관심부족 또한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Simons et al., 1994), 아동의 경우에도 공격적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환경적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어머니의 애정과 관심을 덜 받고 있었다(Gardner, 1987). 반면,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감독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Patrick et al., 2005), Scaramella 등(2002)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양육적인 부모행동이 일탈친구와 교체할 위험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의 일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사와의 관계도 일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7세~1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급에서 얼마나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교사에게 얼마나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는지가 자아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탈을 포함하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Brody,

2002). 뿐만 아니라, 공격수준이 높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는 아동의 공격행동을 예측하였으며(Hughes et al., 1999) 국내의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수록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수준이 높아지는(이상균, 1999) 등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직접적으로도 예측하였다.

초등학교 시기는 부모, 교사 이외에 또래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친구와의 관계도 아동들의 일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국외 연구에서 또래지명과 일탈행동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또래들로부터 함께 즐겨 노는 친구로 지명될수록 아동들의 일탈은 적게 나타난(Ellis & Zarbatany, 2007) 반면 또래 거절과 외현화 문제에서는 정적인 관련이 보고되는(Boivin et al., 2005) 등 친구들로부터 수용되고 지지되며 친구들과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일탈의 위험은 낮아질 수 있음이 시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또래 수용과 또래 거절 등 단순한 친구와의 정서적 애착 차원에서 나아가 어떤 친구와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 일탈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탈 친구와 어울릴 때 상대적으로 일탈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많은 국외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아동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또래집단이 일탈행동을 할수록, 3개월 후 다시 조사해본 결과, 일탈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llis & Zarbatany, 2007), 일탈행동을 하는 학교친구집단과 방과 후 친구집단 모두 청소년들의 일탈에 영향을 미쳤고(Kiesner et al., 2003), 문제행동을 보이는 또래와 어울릴 때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Patterson et al., 2000). 이외에 Scaramella 등(2002)의 연구에서도 일탈친구와의 교체는 1년 후 비행을 예측하였으며, Vitargo 등(2000)의 연구에서도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비행과 관련이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Kim 등(1999)의 연구 역시 또래 일탈은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는 부모, 교사 및 친구와의 정서적 관계가 청소년들의 일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부모애착, 교사애착 및 친구애착이 초등학생들의 일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일탈친구와의 교류가 일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일탈친구의 유무에 따라 아동의 일탈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맺고 있는 친한 친구의 일탈행동 경험 유무를 나누어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탈친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한편,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과 일탈과의 관계는 성차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청소년패널조사(NYS)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탈행동에 대한 가족유대의 영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으며 반면 일탈행동에 대한 일탈친구의 영향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이상문, 2005). 그러나, 반대의 연구결과들도 있다. Rothbaum 과 Weisz(1994)의 메타분석에서는 부모 양육과 외현화 문제는 딸보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더 연관이 있었으며 Simons 등(1996)의 연구에서도 부모 양육의 질은 아들의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딸의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앞선 이상문(2005)의 연구에서 일탈친구의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지만, Kiesner 등(2003)의 연구에서는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교제가 여학생에게는 일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학생의 경우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도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낮아지며 반면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영신 등, 2000). 그러나, 일탈행동은 연령이 증가하여 청소년기로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0-12세의 5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Brody(2006) 등의 종단연구에서 아동들의 문제행동(물건 훔치기, 거짓말, 신체적 공격 등)은 3번의 측정기간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심혜원(2000)의 연구에서도 성관계, 흡연, 무단가출, 도박, 패싸움 등 일탈로 간주되는 문제행동들이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진행될수록 일탈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부모 및 교사와의 정서적 관계는 감소되지만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진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초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에서 일탈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영향을 각 연령별로 따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에는 발달의 가속화 현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2차 성징의 출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춘기의 도래는 정서적인 불안을 야기시켜 일탈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빠져들게 한다. 더구나, 사춘기가 되면서 독립에 대한 욕구가 커짐으로써 대개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에 대한 반발심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로 갈수록 반발심이 증가한다는 심혜원(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반면 공유하는 생활경험이 많은 친한 친구와의 친밀감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빨라진 사춘기의 도래로 인해 급속한 발달과정을 보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초 4학년부터 초 6학년까지 각 학년마다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과 일탈과의 관계를 각각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일탈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영향은 학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일탈연구에 대하여, 애착의 관점에서 부모,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가 일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각 애착의 영향력에 대한 성차를 파악하기 위해 남녀 집단으로 나누고 친한 친구의 일탈경험 유무에 따라 탐색해 볼 것이다. 더불어, 학년에 따라 부모, 교사 및 친구 중 어떠한 애착이 초등학생의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개입방향과 시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탈친구가 있는 경우, 남녀 초등학교 4, 5, 6학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일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일탈친구가 없는 경우, 남녀 초등학교 4, 5, 6학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일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2004-2006년 패널 2 초등학생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추적 조사한 종단설계자료이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패널 2의 대상은 2004년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2,844명의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었고, 2006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표본유지율은 2차년도의 경우, 95.2%였으며 3차년도의 경우 94.0%였다. 표집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학생들의 자기 보고식으로 기입되었으며, 부모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예: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가구 월 평균 소득 등)들은 부모와의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2. 조사도구

1) 부모애착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 문항 중 '부모애착'으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 6문항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초 4 시기 .762, 초 5 시기 .815, 초 6 시기 .858이었다.

2) 교사애착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 문항 중 ‘선생님애착’으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등 3문항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애착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초 4 시기 .548, 초 5 시기 .642, 초 6 시기 .678이었다.

3) 친구애착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 문항 중 ‘친한친구애착’으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등 4문항이다. 각 문항은 모두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애착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초 4 시기 .658, 초 5 시기 .728, 초 6 시기 .775였다.

친구의 일탈경험은 각 일탈의 종류에 대하여 애착을 맺고 있는 친한 친구들의 일탈경험을 묻는 16문항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를 제외한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무단 횡단의 경우,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일탈’의 범위에 적용하기 어렵고,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문항의 예로,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선생님 앞에서 소리치며 대들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술 마시기, 담배피우기, 가출하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초 4 시기 .749, 초 5 시기 .878, 초 6 시기 .815였다.

4) 일탈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 문항 중 ‘본인일탈경험’으로 구성된 총 16문항 중 친구의 일탈경험과 마찬가지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를 제외한 1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없다(1점)’ 와 ‘있다(2점)’의 일탈경험 유무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서 측정된 일탈의 종류는 친구의 일탈경험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초 4 시기 .622, 초 5 시기 .681, 초 6 시기 .710이었다.

5) 남녀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및 일탈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1>을 통해 본 연구의 변인들인 남녀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및 일탈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었다.

<표 1> 남녀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및 일탈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학년과 성별					
	남학생			여학생		
	초 4 M(SD)	초 5 M(SD)	초 6 M(SD)	초 4 M(SD)	초 5 M(SD)	초 6 M(SD)
부모애착	3.64 (0.74)	3.59 (0.76)	3.60 (0.76)	3.85 (0.70)	3.80 (0.74)	3.76 (0.78)
교사애착	2.56 (0.88)	2.55 (0.88)	2.61 (0.83)	2.94 (0.88)	2.87 (0.91)	2.75 (0.88)
친구애착	4.17 (0.67)	4.16 (0.71)	4.07 (0.70)	4.27 (0.60)	4.35 (0.61)	4.27 (0.65)
일탈	1.07 (.098)	1.06 (0.10)	1.05 (0.10)	1.04 (0.75)	1.03 (0.07)	1.04 (0.81)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 Pearson 상관관계, 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로 남학생이 53.6%, 여학생이 46.4%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85.6%가 11세였다. 부모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1차년도(2004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 35.0%였다. 어머니 교육수준 역시 고졸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대졸 23.1%였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이 28.3%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5.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4.6%, 판매직 12.2% 등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무직이 전체의 절반(49.9%)을 차지하였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1~300만원이 31.8%, 101~200만원이 28.5%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학생	1524	53.6
	여학생	1320	46.4
연령	12세	5	0.2
	11세	2435	85.6
	10세	404	14.2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이하	159	5.7
	고 졸	1207	43.3
	전문대졸	268	9.6
	대 졸	976	35.0
	대학원 이상	178	6.4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190	6.8
	고 졸	1695	61.0
	전문대졸	211	7.6
	대 졸	642	23.1
	대학원 이상	41	1.5
아버지 직업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	174	6.2
	전문가	196	7.0
	기술공 및 준전문가	64	2.3
	사 무	789	28.3
	서비스	199	7.1
	판 매	339	12.2
	농업, 임업, 어업	42	1.5
	기능원 및 관련기능	406	14.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425	15.3
	단순노무	85	3.1
	군 인	17	0.6
	기 타	24	0.9
	무 직	25	0.9
어머니 직업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	45	1.6
	전문가	172	6.1
	기술공 및 준전문가	53	1.9
	사 무	190	6.7
	서비스	257	9.1
	판 매	427	15.1
	농업, 임업, 어업	14	0.5
	기능원 및 관련기능	35	1.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85	6.6
	단순노무	33	1.2
	기 타	2	0.1
	무 직	1410	49.9
	가구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94
101-200만원		789	28.5
201-300만원		883	31.8
301-400만원		483	17.5
401만원 이상		422	15.2

2. 부모애착, 교사에착, 친구애착 및 일탈과의 상관관계

각 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 검증을 하였다. 그 전에, 학년의 영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학년의 남녀 일탈에 대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여학생의 초 4학년 일탈과 초 6학년 일탈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녀 각 학년별로 모두 유의한 일탈의 차이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초 4학년과 초 6학년 간 일탈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초 4학년과 초 6학년 간 부모애착과 교사에착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786, p<.001, t=5.936, p<.001$). 따라서, 학년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초 4, 5, 6학년에 대하여 각각 따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 <표 5> 및 <표 6>과 같다.

친한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통제하기 위해 각각의 경우를 따로 분석하였다. 부모애착, 교

사에착 및 친구애착과 일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표 4>에는 남녀 초등학교 4학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은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과 일탈 간 모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부모 및 교사에착 $p<.01$, 친구애착 $p<.05$),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p<.01$) 및 교사에착($p<.05$)에서만 일탈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여학생은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부모애착, 교사에착 및 친구애착(모두 $p<.01$)이 일탈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애착($p<.01$) 및 교사에착($p<.05$)이 일탈과 부적으로 연관이 되었다. 따라서, 남녀 모두 일탈친구가 없을 경우 부모, 교사 및 친구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일탈과 관련이 되었으나 일탈친구가 있는 경우는 부모 및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만 일탈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는 남녀 초등학교 5학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은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교사

<표 3> 남녀 일탈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남학생	대응차		t	여학생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4-초5	.009	.122	2.714**	초4-초5	.007	.084	2.761**
초5-초6	.008	.117	2.433*	초5-초6	-.005	.090	-1.864 ⁺
초4-초6	.016	.117	5.220***	초4-초6	.002	.097	.855

⁺p<.10, *p<.05, **p<.01, ***p<.001

<표 4> 초 4 남녀 초등학생 부모, 교사, 친구애착 및 일탈과의 상관관계

남학생 / 친구 일탈경험없음	부모애착	교사에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에착	.375**	1		
친구애착	.293**	.224**	1	
일탈	-.181**	-.130**	-.092*	1
남학생 / 친구 일탈경험있음	부모애착	교사에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에착	.255**	1		
친구애착	.291**	.192**	1	
일탈	-.112**	-.076*	-.006	1
여학생 / 친구 일탈경험없음	부모애착	교사에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에착	.249**	1		
친구애착	.332**	.151**	1	
일탈	-.109**	-.115**	-.128**	1
여학생 / 친구 일탈경험있음	부모애착	교사에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에착	.185**	1		
친구애착	.291**	.223**	1	
일탈	-.125**	-.079*	-.010	1

*p<.05, **p<.01

<표 5> 초 5 남녀 초등학생 부모, 교사, 친구애착 및 일탈과의 상관관계

남학생 / 친구 일탈경험없음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68**	1		
친구애착	.350**	.110*	1	
일탈	-.052	-.097*	-.022	1
남학생 / 친구 일탈경험있음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59**	1		
친구애착	.328**	.112**	1	
일탈	-.116**	-.041	-.049	1
여학생 / 친구 일탈경험없음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애착	.301**	1		
친구애착	.263**	.259**	1	
일탈	-.165**	-.080	-.016	1
여학생 / 친구 일탈경험있음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49**	1		
친구애착	.287**	.149***	1	
일탈	-.048	-.101***	-.022	1

*p<.05, **p<.01

<표 6> 초 6 남녀 초등학생 부모, 교사, 친구애착 및 일탈과의 상관관계

남학생 / 친구 일탈경험없음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83**	1		
친구애착	.251**	.058	1	
일탈	-.185**	-.168**	.053	1
남학생 / 친구 일탈경험있음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50**	1		
친구애착	.242**	.130**	1	
일탈	-.116**	-.062	-.029	1
여학생 / 친구 일탈경험없음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27**	1		
친구애착	.287**	.119**	1	
일탈	-.068	-.108**	-.006	1
여학생 / 친구 일탈경험있음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일탈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22**	1		
친구애착	.135**	-.001	1	
일탈	-.202**	-.138**	.050	1

*p<.05, **p<.01

애착과 일탈 간 부적 상관이 나타난(p<.05) 반면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애착(p<.01)과 일탈이 유의한 부적 관련을 보였다.

여학생은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남학생과 달리 부모애착과 일탈 간 부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p<.01), 친구가 일

탈경험이 있는 경우 교사애착(p<.01)에서 일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이 일탈친구가 없는 경우와 여학생이 일탈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일탈과 관련이 있으며 반대로 남학생이 일탈친구가 있는 경우와 여학생이 일탈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

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일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에는 남녀 초등학교 6학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은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 애착 및 교사애착이 일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모두 $p < .01$)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애착만 일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p < .01$).

여학생은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교사애착이 일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p < .01$)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애착 및 교사애착이 일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모두 $p < .01$). 따라서, 남학생이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부모 및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일탈과 관련이 되고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일탈과 관련이 되는 반면, 여학생이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만이 일탈과 관련이 되고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 및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일탈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초 4학년 시기에는 남녀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일탈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모두 일탈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으며 일탈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및 교사애착에서만 일탈과의 관련이 나타났다. 초 5학년 시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교사애착이,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애착이 일탈과 관련이 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부모애착이,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교사애착이 일탈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초 6학년 시기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부모 및 교사애착에서,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애착에서만 일탈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교사애착에서,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 및 교사애착에서 일탈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3. 일탈친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남녀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남녀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남녀 학년별로 일탈경험을 한 초등학생들의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측정된 15문항의 일탈 행동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일탈행동을 경험한 경우 '일탈경험 있음' 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일탈비율이 더 높았다.

<표 7> 남녀 초등학생의 학년별 일탈경험 여부

남학생(학년)	일탈경험 없음(%)	일탈경험 있음(%)	여학생(학년)	일탈경험 없음(%)	일탈경험 있음(%)
초 4	51.0%	49.0%	초 4	64.4%	35.6%
초 5	59.3%	40.7%	초 5	70.8%	29.2%
초 6	64.2%	35.8%	초 6	70.4%	29.6%

<표 8> 일탈유형별 빈도

일탈유형	초 4(%)		초 5(%)		초 6(%)	
	남	여	남	여	남	여
무임승차	2.2	1.7	2.4	1.6	3.1	2.6
교사에게 대들기	6.9	4.7	7.9	4.1	6.8	4.7
부정행위	11.3	9.6	7.8	6.4	8.5	9.0
무단결석	9.6	7.5	9.4	5.6	4.5	4.4
학용품비 다른데 사용	15.5	10.2	11.1	8.1	11.9	7.8
집단따돌림	10.6	9.4	10.1	9.0	8.5	9.2
놀림, 조롱	15.6	6.5	12.8	5.6	8.6	4.2
협박	4.3	1.7	2.6	1.4	2.3	1.4
음란물	2.9	1.5	4.1	1.7	4.5	2.6
음주	9.6	4.0	7.1	2.5	6.8	5.3
흡연	1.5	0.1	1.4	0.3	1.9	1.4
폭력	5.1	1.0	2.9	1.4	2.3	0.8
남의 돈, 물건 뺏기	1.2	0.4	1.5	0.7	1.3	1.3
남의 돈, 물건 훔치기	1.3	1.4	2.1	0.8	2.0	0.8
가출	2.6	0.7	2.3	0.9	1.8	1.0

학년별 일탈경험 여부를 살펴본 후, 남녀 초등학생들의 일탈행동 유형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일탈유형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시험시간 부정행위, 무단결석, 학용품비 다른 데 사용하기, 집단따돌림,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조롱하기 등의 비율이 높았으며, 음란물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친한 친구의 일탈경험이 초등학생들의 일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초 4, 5, 6학년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친한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통제하기 위해 각각 따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 <표 11> 및 <표 12>에 나타나 있다.

우선, <표 4>, <표 5> 및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각 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7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검정결과, 모든 경우에서 검증값이 2 가까이로 나타나, 자기상관은 없었다.

초 4 학년의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초 4 시기 남학생은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모두 부모애착이 일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144,

$p<.01$, $\beta=-.110$, $p<.01$).

여학생은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친구애착($\beta=-.093$, $p<.05$)과 교사에착($\beta=-.083$, $p<.05$) 순으로 일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부모애착($\beta=-.129$, $p<.01$)이 일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초 4학년 남학생의 경우 일탈친구 존재와 상관없이 모두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일탈위험이 커졌으며, 반면 여학생의 경우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친구 및 교사에착이 낮을수록 일탈 위험이 커지고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일탈위험이 커졌다.

초 5 학년의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초 5 시기 남학생이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는 일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애착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남학생이 친한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애착($\beta=-.109$, $p<.01$)이 일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이 친한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남학생과 달리 부모애착($\beta=-.162$, $p<.001$)이 일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친한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 교사에착($\beta=-.092$, $p<.05$) 이 일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9> 친한 친구의 일탈경험이 남녀 초등학생들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

남	일탈			여	일탈		
	B	β	t		B	β	t
초 4 친구의 일탈경험	.065	.320	13.142***	초 4 친구의 일탈경험	.043	.289	10.963***
F=172.709*** R ² = .102			F=120.194*** R ² = .084				
초 5 친구의 일탈경험	.058	.273	10.806***	초5 친구의 일탈경험	.043	.314	11.709***
F=116.776*** R ² = .075			F=137.110*** R ² = .099				
초 6 친구의 일탈경험	.054	.274	10.708***	초6 친구의 일탈경험	.053	.322	12.052***
F=114.660*** R ² = .075			F=145.262*** R ² = .104				

*p<.05, **p<.01, ***p<.001

note. 친한 친구 일탈경험 없음=0, 있음=1 로 코딩되었음

<표 10> 초 4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일탈			예측변인	일탈		
	B	β	t		B	β	t
초4남 부모애착	-.010	-.144	-3.142**	초4여 부모애착	-.04	-.058	-1.378
(친구 일탈 교사에착	-.004	-.069	-1.541	(친구일탈 교사에착	-.005	-.083	-2.053*
경험 없음) 친구애착	-.003	-.032	-.737	경험 없음) 친구애착	-.009	-.093	-2.237*
F=7.356*** R ² = .038 N=565			F=5.954** R ² = .027 N=646				
초4남 부모애착	-.017	-.110	-3.159**	초4여 부모애착	-.016	-.129	-3.168**
(친구일탈 교사에착	-.007	-.055	-1.614	(친구일탈 교사에착	-.005	-.057	-1.434
경험 있음) 친구애착	.006	.036	1.055	경험 있음) 친구애착	.007	.049	-1.194
F=5.164** R ² = .016 N=935			F=4.498** R ² = .020 N=658				

*p<.05, **p<.01, ***p<.001

<표 11> 초 5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일탈			예측변인		일탈		
		B	β	t			B	β	t
초5남 (친구 일탈 경험 없음)	부모애착	-.002	-.031	-.626	초5여 (친구 일탈 경험 없음)	부모애착	-.007	-.162	-3.686***
	교사애착	-.005	-.079	-1.703		교사애착	-.002	-.040	-.936
	친구애착	.000	-.003	-.053		친구애착	.002	.036	-.371
F=1.435 R ² = .009 N=500					F=5.799** R ² = .029 N=582				
초5남 (친한 친구 경험 있음)	부모애착	-.017	-.109	-3.038	초5여 (친구 일탈 경험 있음)	부모애착	-.003	-.025	-.608
	교사애착	-.001	-.010	-.293**		교사애착	-.008	-.092	-2.286*
	친구애착	-.002	-.015	-.419		친구애착	.000	-.001	-.036
F=4.251** R ² = .014 N=914					F=2.279 ⁺ R ² = .010 N=662				

⁺p<.10, *p<.05, **p<.01, ***p<.001

<표 12> 초 6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일탈			예측변인		일탈		
		B	β	t			B	β	t
초6남 (친구 일탈 경험 없음)	부모애착	-.012	-.178	-4.141***	초6여 (친구 일탈 경험 없음)	부모애착	-.003	-.052	-1.250
	교사애착	-.007	-.116	-2.772**		교사애착	-.005	-.098	-2.459*
	친구애착	.008	.104	2.529*		친구애착	.001	.021	.505
F=11.862*** R ² = .057 N=594					F=3.087* R ² = .014 N=657				
초6남 (친구 일탈 경험 있음)	부모애착	-.016	-.108	-2.933**	초6여 (친구 일탈 경험 있음)	부모애착	-.025	-.191	-4.631***
	교사애착	-.005	-.035	-.979		교사애착	-.011	-.096	-2.340*
	친구애착	.000	.001	.036		친구애착	.012	.076	1.884 ⁺
F=4.065* R ² = .015 N=823					F=11.683*** R ² = .056 N=597				

⁺p<.10, *p<.05, **p<.01, ***p<.001

즉, 초 5학년 남학생이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관계가 없는 반면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일탈수준이 높아지며 여학생이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일탈수준이 높아지고,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일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6 학년의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초 6 시 기 남학생이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애착($\beta = -.178, p < .001$), 교사애착($\beta = -.116, p < .01$), 친구애착($\beta = .104, p < .05$) 순으로 일탈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부모애착은 부적으로, 친구애착은 정적으로 일탈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남학생이 친한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는 부모애착($\beta = -.108, p < .01$)이 일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이 친한 친구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남학생과 달리 교사애착이 일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98, p < .05$). 그러나, 친한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애착($\beta = -.191, p < .001$), 교사애착($\beta = -.096, p < .05$), 친구애착($\beta = .076, p < .10$) 순으로 모든 애착관계에서 일탈에 대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 중 부모애착, 교사애착은 일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애착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초 6 학년 남학생은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부모 및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일탈수준이 높아졌으며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일탈수준이 높아졌다. 반면, 여학생은 일탈친구가 없을 때에는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일탈수준이 높아졌으며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 및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일탈수준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부모애착은 일탈친구의 존재와 상관없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일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애착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일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친구애착의 유의한 영향은 초 4학년 때에는 부모 및 교사애착과 마찬가지로 부적관계로 나타났으나 초 6학년이 되어서는 부모애착, 교사애착과 달리 정적으로 일탈에 영향을 미쳤다. 즉,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에서는 친구애착이 낮을수록 일탈위험이 커졌으나 연령이 높아져 사춘기가 진행될 때에는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오히려 일탈위험이 커졌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일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년별로 탐색하였다. 특히, 친한친구의 일탈경험 유무를 통제하여 애착을 맺고 있는 친한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와 일탈경험이 없는 경우, 각각 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탈또래와 어울리는 초등학생들의 일탈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는 성별 구분 없이 부모의 애착과 감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각 애착변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애착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일탈에 더 영향을 미쳤다.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애착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일탈친구가 없는 초 5학년 남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부모애착이 남학생의 일탈에 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남학생의 일탈 행동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는 부모양육행동이 딸보다 아들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Rothbaum과 Weisz(1994) 와 Simons 등(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반면, 교사애착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일탈에 더 영향을 미쳤는데,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일탈행동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때에는 대체적으로 여학생의 학업에 대한 욕구와 능력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현상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rickson의 발달단계 상 이 시기는 학교생활이 주 발달과업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연구결과를 볼 때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애착의 유의한 영향은 초 4학년 때에는 부모 및 교사 애착과 마찬가지로 친구애착이 낮을수록 일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 6학년 때에는 부모 및 교사애착과 달리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일탈수준도 높아졌다. 이처럼 또래들로부터 거절되는 아동일수록 일탈행동이 많아진다는 선행연구들(Boivin et al., 2005; Ellis & Zabatany, 2007)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학년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오히려 일탈행동이 늘어나는 것은, 청소년 초기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동의 규범과 질서에 대한 반항적 경향성이 친한 친구가 있을수록 무리를 이루어 두려움이 감소되면서 일탈행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남녀 초등학생들

의 일탈행동에 대한 개입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대체적으로 남녀 모두 일탈친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히 아동들이 일탈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있을 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때의 부모의 개입은 일탈행동 제지를 위한 강압적인 태도나 체벌보다는 더욱 질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며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모와의 정서적이고 긴밀한 애착관계가 아동들의 일탈 행동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일탈에 대한 개입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남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학생들에게는 교사-학생 간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일탈행동을 보이는 아들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남아의 발달과정, 바람직한 대화법과 적절한 대처법 등을 포함시켜 부모들의 남아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 반면,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여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도방법 등에 대하여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친구애착과 일탈에 대한 개입은 학년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린 연령에서는 아동들의 또래관계 형성에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또래들과 친밀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 반면, 청소년기가 다가올수록 무리를 이루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동조하는 친구와의 우정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이 시기 아동들은 호기심으로 인하여 일탈행동을 저지른 후 또래들 사이에서 지위를 인정받고, 그에 대한 잘못된 자부심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달과정상 또래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무리 내에서의 이탈과 소외를 두려워하여 일탈행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 쉽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이러한 아동들의 교우관계의 특성을 파악하여 연령이 어릴수록 친밀한 관계를 적절히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켜주어야 하며, 반면 사춘기의 아동들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누구이며, 어떠한 일탈행동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동과 함께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지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일탈에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이루어진 의의를 가지며 특히 중요한 의미 있는 타자와의 애착이란 관점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일탈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복지정책, 부모 및 교사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관점에서 일탈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의 영향을 검증한 의의를 가지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일탈에 대한 이들의 설명력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유의성 뿐 아니라 실용적 유의성까지 고려해본다면, 초등학생들의 일탈행동 형성에 이들 변인 이외에 또다른 변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애착'의 관점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만 부모의 학대와 폭력, 교사의 무관심, 또래 거절 등 관계 내에서의 부정적인 특성들이 초등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부모,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에 따라 아동의 자아통제능력, 자아존중감, 충동성, 우울감 등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들이 다르게 형성되고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들의 일탈행동 형성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과정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 4, 초 5, 초 6 각각의 시기마다 학년별 횡단분석을 통해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일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추이를 파악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여 종단적인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와 발달적 추이를 살펴볼 것이 권장된다.

셋째, 본 연구는 일탈에 대해 일탈경험 유무로만 측정된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후에는 일탈의 정도나 횟수 등 보다 세분화된 측정도구가 사용될 것이 권장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친구애착에 대하여 학교 친구와 방과 후 친구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학교 이외에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 친구와 방과 후 친구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일탈에 대한 친구애착의 영향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탈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영향이 중고등학교 시기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초등학교를 지나 중, 고등학교를 거쳐 성인기까지 이루어지는 종단조사를 통해 각 영향에 대한 발달과정 전체의 연령별 추이를 파악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가 일탈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는데, 친한 친구가 1가지라도 일탈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일탈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는 친한 친구가 일탈행동을 1가지를 했든 10가지 이상을 했든 모두 동일하게 일탈친구로 분류된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 집단이 얼마나 일탈과 심각하게 관련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학년별로 남녀 초등학생들의 일탈 경험여부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초등학교 4학년의 일탈 경험이 5, 6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행되는 동안 일탈행동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일탈경험을 측정하였으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탈행동에 대하여 교사보고 등을 통해 측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영혜 · 손현미 · 양영옥 · 조영란 · 이내영(2007).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3(4), 383-389.
- 김충기 · 천귀순(2003).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성격 특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6(2), 1-20.
- 박영신 · 김이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 김의철 · 정갑순 · 이상미 · 권혁호 · 양계민(2000). 초·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백혜정(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9(2), 357-373.
- 송호창 · 오운자(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청소년의 비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151-173.
- 심혜원(2000). 청소년기 반발심과 문제행동 및 우울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 · 이점숙 · 김정민(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문(2005). 성별에 따른 일탈행동 성장경로의 차이: 미국 청소년패널조사(NYS)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4), 162-197.
- 이시은 · 이재창(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 또래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 심리치료, 17(4), 947-963.
- 정기원 · 권량희(2006). 부모 및 교사 애착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일반건강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13(5-2), 81-102.
- 최선희 · 김희수(2006). 아동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들의 다차원 상호작용. *한국아동복지학*, 21, 233-258.
- 한국일보(2007). 서울 청소년 7.9% 성경험. 2007.09.11 한국일보 인터넷 기사. news.hankooki.com
- Boivin, M., Vitaro, F., & Poulin, F.(2005). Peer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in early childhood. In R. E. Trembay, W. W. Hartup, & J. J. Archer (Eds.), *Developmental origins of aggression* (376 - 397). N.Y.: Guilford.
-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
- Brody, G. H., Chen, Y. F., Murry V. M., Ge, X., Simons, R. L., Gibbons, F. X., Gerrard, M., & Cutrona, C. E.(2006).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youths: A five-year longitudinal analysis with contextual moderation effects. *Child Development*, 77(5), 1170-1189.
- Brody, G. H., Dorsey, S., Forehand, R., & Armistead, L(2002). Unique and protective contribution of parenting and classroom processes to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single-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73(1), 274-286.
- Ellis, W. E. & Zarbatany, L(2007). Peer group status as a moderator of group influence on children's deviant, aggressive,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40-1254.
- Gardner, F. E. M. (1987).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conduct-problem children: Is there training for harmony as well as fight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2), 283-293.
- Hughes, J. N., Cavell, T. A., & Jackson, T.(1999). Influence of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childhood conduct problem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8(2), 173-184.
- Kiesner, J., Poulin, F., & Eraldo, N.(2003). Peer relations across contexts: Individual-network homophily and network inclusion in and after school. *Child Development*, 74(5), 1328-1343.
- Kim, J. E., Hetherington, E. M., & Reiss, D.(1999). Associations among family relationships, antisocial peers,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behavior: Gender and family type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70(5), 1209-1230.
- Patrick, M. R., Snyder, J., Schrepferman, L. M., & Snyder, J.(2005). The joint contribution of early parental warmth, communication and tracking, and early child conduct problems on monitoring in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6(5), 999-1014.
- Patterson, G. R., Dishion, T. J., & Yoerger, K.(2000). Adolescent growth in new forms of problem behavior: Macro and micro peer dynamics. *Prevention Sciences*, 1, 3-13.
- Rothbaum, F., & Weisz, J. R.(1994). Parental caregiving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in non-clinical sampl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55-74.
- Scaramella, L. V., Conger, R. D., Spoth, R., & Simons, R. L.(2002). Evaluation of a social contextual model of delinquency: A cross-study replication. *Child Development*, 73(1), 175-195.
- Simons, R. L., Johnson, C., & Conger, R. D(1994). Harsh corporal punishment versus quality of parental involvement as an explanation of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91-607.
- Simons, R. L., Johnson, C., Beaman, J., Conger, R. D., & Whitbeck, L. B(1996). Parents and peer group as mediators of the effect of community structure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1), 145-171.
- Vitargo, F., Brendgen, M., & Tremblay, R. E.(2000). Influence of deviant friends on delinquency : searching for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313-325.

□ 접수일 : 2008년 03월 11일

□ 심사일 : 2008년 05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6월 13일